한국구술인물사⑨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아물지 않는 한국전쟁의 흔적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재성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1977년 10월 폐간호 〈대화〉 잡지에 '민중불교론'을 게재한다. 전서암이라는 필명으로 기고했다. 그러나 이 글은 1년을 기다린 후 우여곡절 끝에 실렸다. 사회운동에 관심 있었던 불교인들이 이 글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 소극적이던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동인을 제공했다. 엄혹했던 유신독재시절, 불교계의 지성을 현장으로 이끌어낸 글이다. 전재성의 구술에 따라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살펴본다.

그는 서울대 농대 농화학과 1학년 때 불교학생회를 결성했고, 1974년 겨울 대불련 회장에 당선되어 1975년 한 해 동안 활동했다. 회장으로 피선되기 이전에 전재성은 민청학련 사건에 가담했다가 감옥생활을 했다. 이 때 동국대에서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여익구가 구속되었다 석방(1975년 2월)되자 그를 만났다. 그리고는 이른바 '민중불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고려대 부근 대원암에 주석했던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당시 고은, 황석영, 고준환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혐의를 씌워 여익구와 전재성은 다시 구금했다. 다시 풀려났지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익구는 출가하여 승려가 됐고, 전재성은 대불련 회장이라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혔고 항상 시위 발생하기 전에 구금됐다.

전재성은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에 출생했다. 내성적이면서 항상 가슴에 응어리

고려대 부근 대원암

를 지녀야 했다. 부산 난민촌에서 성장할 때 겪은 화상 때문이다.

"밥을 할려고 이제 끓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놨어요. 근데 제가 "엄마 무좀 줘" 하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은 거야 문을. 문을 열으니까 아~ 우리 형님이 있다가 또 뒤에 있다가 "나도 물 좀 줘" 하면서 문을 또 활짝 열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 앞에다 놓은 끓는 물속에 이렇게 확 빠진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여름이라면 괜찮았을 텐데 겨울이라서 겨울에 끓는 물에 빠졌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작은 하꼬방 집에서 여러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으며, 끓여 놓은 물에 화상을 당한 것이다. 팔뚝에 자리한 흉터들을 보여준다. 몸 전체에 화상 흔적이 드리워 있었고 그는 성장 과정 특히 사춘기에 겪었던 고뇌를 호소하였다.

부모님과 조상은 대대로 함경도 신흥군에서 살았다. 전재성의 할아버지는 비록 화전민이었으나 천도교를 신봉하였고, 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고 한다. 책을 읽어준다던가 이웃의 대소사가 생기면 글을 써 주는, 이른바 동네의 식자층이었으며 또한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부친은 광업소 혹은 철공소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정밀한 기계로 작업하는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건너가 일했으며, 해방과 함께 귀국하여 계속 기계 작업을 했다. 6.25전쟁에 이어 1.4 후퇴 때 전재성의 가족은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왔다. 거제도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주한 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서울에 올라왔다. 중학교 시절과 고교 시절을 회고한다.

"제가 경동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때 인제 그 생물 선생님이 아주 그 참선 불교지도 명상지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존경스러웠던 분이시고 제가 그 밑에서 조금 그 일주일마다 한 번 참선같은 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⑩

"일등품 세가마…" 철저하게 소임살던 선지식

경봉 스님은 선사(禪師)이면서도 사찰의 소임이 맡겨지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어려운 시기 불교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1932년(41세)에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講主)에 취임하여 학인(學人)스님들을 이끌었고, 1935년(44세)에 통도사 주지를 맡았다.

1932년 2월 17일 〈삼소굴일지〉에 경봉 스님이 통도사 강원 강주소임을 보면서 적은 내용이다.

"밤에 학인들의 연설에 참석하니 연제(演題)가 봄맞이, 우리의 사명, 노력은 성공의 기초, 불교에서 본 대자대비, 망중한 등이었는데, 이 연설을 듣고 나서 관례대로 연설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강원에서 학인스님들에게 설법을 하게 해 지도한 모습에서 스승과 제자의 훈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1937년 1월 일기를 보면 통도사 주지 소임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늠하게 한다.

"일등품이 3가마, 이등품 390가마, 삼등품 605가마, 등외 109가마, 계 1107가마 내(內)에서 매 가마당 7원 85전씩 박현진이 사가고, 사중창고 500석 매 석당 17원 39전에 황현암이 사가다."

경봉 스님은 당시 사중의 쌀을 입찰 경매하는 내용조차 위와 같이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스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소임을 사셨는지 알 수 있다. 또, 이는 통도사의 살림규모를 살펴볼 수 있고, 현재의 통도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금도 쌀 수확은 본사 대중이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하다. 1000미터가 넘는 영축산은 마치 병풍을 친 것 같이 넉넉하게 펼쳐져 모든 면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뿐만 아니라 국내 불교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스님은 1941년(50세)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 이사장에도 취임하게 된다.

1941년 봄 일본 불교계를 시찰하고, 1945년 54세 때 선학원 이사장 1946년 55세 때 불교혁신총연맹본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다. 이러한 시기 스님은 통도사 강주와 주지, 극락선원 개설, 화엄산림법회 개설 등 정진과 포교의 각 방면으로 활발하게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에 충실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의 오보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2일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지배체제를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를 달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이 때 경봉 스님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동해 반도에 새 가을을 맞아
한국전쟁이 이 날 모두 끝났네.
길이 빛나거라 순국절사의 공명이여,
와신상담(臥薪嘗膽)한 충렬들 얼마나 근심스러웠나.
매란의 은은한 미소 뭇 향기 압도하고
강물과 바닷물 한 맛으로 흐르네.
풍진이 다 지나가 국민이 즐거워하니
이제부터는 응당 태평세월 누리리라."

경봉 스님은 해방된 기쁨을 함께하시며 순국열사들을 위로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것을 축원하셨는데 이러한 스님의 기원대로 순풍에 돛단배처럼 안정된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㉛ 북산석굴

석굴에 새겨진 당의 문화

대족지역의 북산석굴

돈황의 불교는 당나라 때 들어 불교문화의 획을 그었다. 중국을 떠나며 살펴봐야 할 것은 사천지방의 석굴이다. 사천은 석굴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인데, 특히 대족(大足)지방의 석굴이 매우 흥미롭다.

사천지역은 안사의 난(중국 당나라 현종 말, 755년에 안녹산과 사사명이

석굴이 발달했던 사천지역
대족지역 북산석굴이 대표적

일으킨 반란)과 회창폐불(845년 당나라 무종이 일으킨 법란)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으로, 독자적인 불교를 이룩했다. 특히 당 현종이 안사의 난을 피해 사천지방으로 이주하는 시기에 당나라 중앙에서 활동하던 문인이나 화공 공인들이 사천으로 상당히 이주했다. 이런 영향으로 당시 유행하던 밀교가 사천지역에 새로운 불교문화를 이룩했다. 또한 당시 사천에서 활동하던 신라출신의 정중무상(淨衆無相: 684~762)이 성도(成都) 정중사(淨衆寺)에 주석했다. 그는 사천에서 새로운 불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족지역의 석굴 중 북산(北山) 석굴은 당나라 시대 후기의 불교문화를 잘 보여준다. 245굴은 관무량수경변상을 벽화가 아닌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밀교적 영향을 받은 약사유리광불(藥師琉璃光佛)과 북방비사문천왕(北方毘沙門天王)상이 조상된다. 비사문천의 경우 사천왕은 하나지만 밀교의 성행이후 비사문천이 중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사천지역에 관한 불교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정중 무상 스님을 중심으로 중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 수용된 밀교문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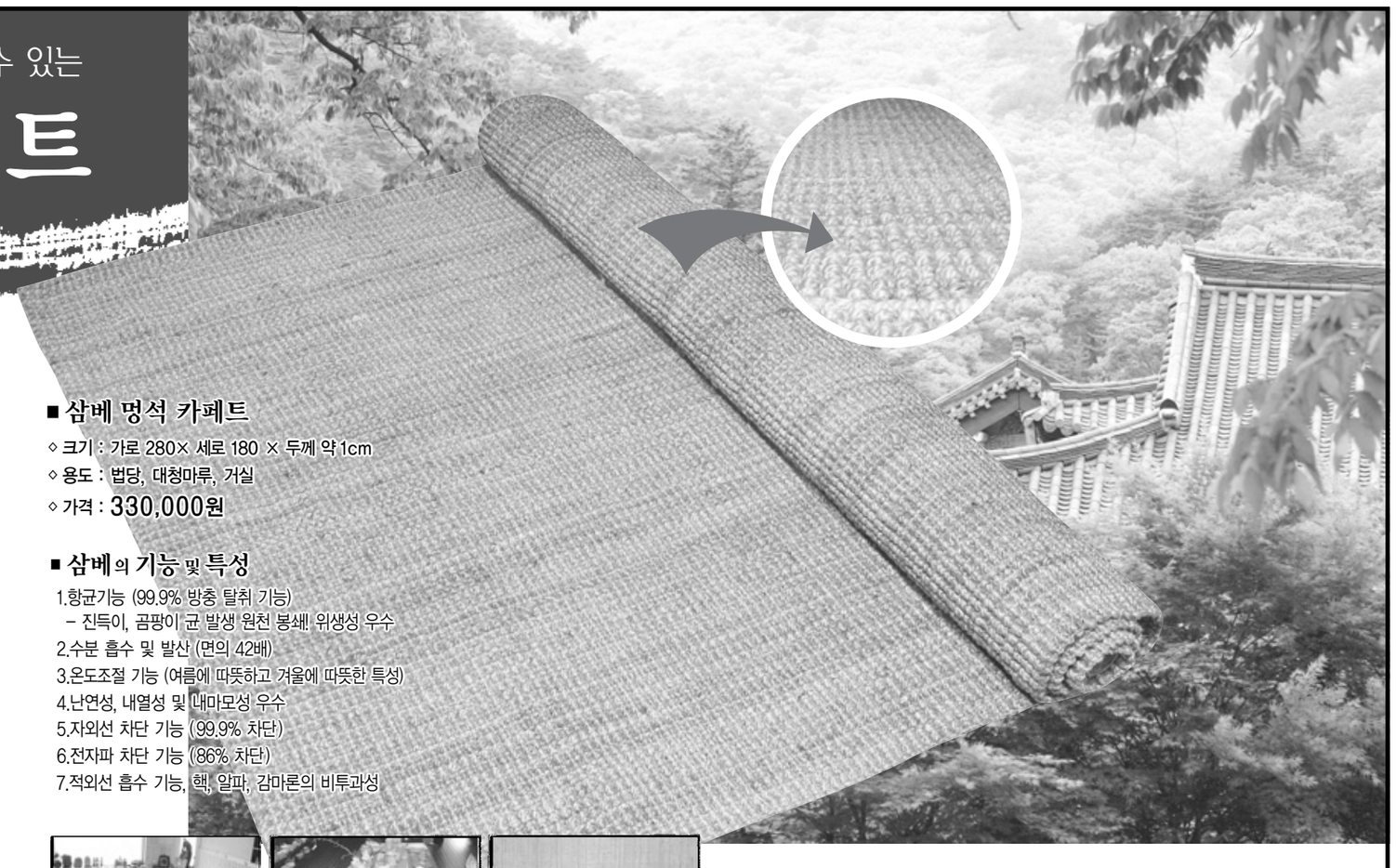
당나라 때 중국문화는 최고의 전성기에 도달했다. 통일신라(676)에는 우리나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당시 무수한 승려들이 당나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새로운 불교적 흐름을 간직하고 이 땅에 들어왔다. 이전과 달리 무수한 구법승들의 활동은 불교문화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당나라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한 이후 당나라의 불교문화를 바꿔 놓았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통일신라에 연출된 것이다. 통일신라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다. 문화는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면서 화려한 꽃을 피운다. 이제 신라 땅에서 새로운 불교문화의 장이 열리려 한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